



백혈병 간부 직원의 죽음

노윤래

원자력 칼럼니스트 · 전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 서울대 전기공학과 졸업
-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관
-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본부장
-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 서울대, 한양대 감사 역임

1988년 10월 초 필자를 보좌하며 함께 근무했던 사우 박신우 부처장이 사망했다. 사인은 악성 종양(암)의 일종인 백혈병이었다. 이날 저녁 상가에는 평소 그를 따르던 동료와 후배들이 고인의 넋을 기리고 유족을 조문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필자가 상가에 도착해보니 이미 많은 직원들이 응접실의 이곳저곳에 3~4명씩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필자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고인의 사망 원인(백혈병)이 직업과 관련이 있었느냐는 것이었다.

어떤 직원은 고인이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에서 6년간 보건물리를 담당했던 실무 책임자였기 때문에 방사선에 과다한 노출 가능성을 언급했고, 다른 직원은 매사에 엄격했던 성품의 고인이 자신의 직책인 보건물리 업무를 소홀히 했을 까닭이 없다면서 고인의 죽음과 방사선과의 관련성을 일축했다.

박신우 부처장의 꼼꼼한 업무 수행

필자가 고인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고리 원전을 책임지고 운영할 요원 50여명을 선발해 주계약자인 웨스팅하우스(WH)의 자이온 훈련소(Zion Training Center)에 파견 OJT 교육을 받기 위해 시행한 선발 인터뷰에서였다.

방사선 방어 및 보건물리 분야의 훈련을 끝내고 귀국한 고인의 귀국 보고



원전 현장 점검.

를 듣고 필자는 놀랍도록 만족했다. 요원 선발 면접에는 특별한 인상을 남기지 않았던 고인이 미국에서 훈련을 끝내고 귀국해 필자에게 강의 내용, 실기 훈련, 강사진의 열성 등 OJT 내용과 처음 경험하는 외국 생활에 대해 발표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고 매우 흡족했기 때문이었다.

WH 훈련을 끝내고 귀국한 직원들은 고리 원전의 건설 공사가 지연되어 현장에 투입할 수 없어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화력발전소에 파견 근무기로 했다. 원전도 2차계통의 터빈 발전기를 포함한 BOP는 화력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었다. 화력에서 1년간 파견 근무한 후 이들은 고리에 배속되었고 고인은 그로부터 6년간 계속 고리에서 근무했다.

그러던 1984년 월성 원전에서 중수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을 조사 보고하라는 사장의 지시를 받고 필자는 5~6명으로 구성된 팀을 만들어 현장으로 갔다.

방사선 안전 관리와 보건물리 분야의 조사 업무를 고인(박신우 부장)에게 위임한 필자는 1주간의 조사가 끝난 후 팀원들의 보고 내용을 종합해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했다. 이 때 고인의 꼼꼼하고 조직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필자는 파악했다.

방사선 피폭선량 기록과 일치된 고인의 발언

필자가 고인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은 1987년 8월 본사에 근무하면서였다. 얼굴이 몹시 수척했고 혈기마저 사라진 고인의 모습을 보고 병세가 뚜렷함을 직감했다.

항암 치료를 위해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야만 되는 정신적·육체적 괴로움이 무척 힘들었던 고인은 어느 날 필자에게 “처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처장님을 별로 보좌해 드리지 못해...”라고 말끝을 잊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필자는 고인에게 회사일은 당분간 잊고 힘껏 병마와

짜워 이기라고 격려했다. 그러나 고인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어 통원 치료에는 한계가 있어 입원하게 되었다.

고인이 운명하기 며칠 전 필자는 고리 원전에 오랫동안 근무한 것이 자신이 앓고 있는 병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뜻밖의 질문이란 듯이 고인은 한마디로 이를 부인했다. 필자가 고인이 6년간 근무했던 고리 원전에서의 방사선 피폭선량 기록을 확인한 결과와 일치된 발언이었다.

백혈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현대 의학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과다한 방사선, 맹독성 화학약품 취급자에서 백혈병 발생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백혈병의 증상은 '재생 불량성 빈혈'과 유사한데, 이는 골수에서 혈액세포가 생산되지 않고 이미 생산된 혈액세포마저 파괴되는 병이다. 백혈구 중의 T-림프구가 골수세포를 억제하고 골수에서 생산된 적혈구, 백혈구와 혈소판마저 파괴하므로 면역성이 크게 훼손되어 사망의 원인이 된다.

미망인을 회사 상용원으로 채용

박신우 부처장의 사망을 전후에 필자는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체르노빌 참사를 계기로 세계원자력발전사업자협회(WANO)를 발족하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이 활발해 파리에서 국제원자력최고경영자회의(INUEM)가 1988년 8월에 있었고 다음 해에는 모스크바에서 WANO 창립 총회가 있었는데 사장이 참석토록 계획이 되어 있어 이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또한 직접 사장을 수행하느라고 고인(박신우)의 유족에 대한 적절한 배려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 유감이었다.

어느 날 필자는 고인을 따르던 직원들과 의논한 결과 미망인을 회사의 상용원으로 특채하는 방안을 생각하게 되어 이를 사장에 건의했다. 사장은 반대했다. 정식 직

원이 아닌 상용원의 채용은 사장이 결정할 수 있겠지만 원전 직원의 사망으로 미망인을 채용할 경우 언론에서 원전으로 인해 사망한 직원의 유족을 무마하기 위해 회사가 마지못해 미망인을 채용했다고 보도하게 되면 낭패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필자는 사장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미망인을 채용하려는 이유는 고인이 국내 최초의 원전에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훌륭한 실적을 남긴 공로를 기리는 뜻에서 또한 유족의 생계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겠기에 사장에게 건의한다고 간청했다. 사장은 한참 생각하더니 승인했다.

언론 대응의 극명한 대조

박신우 부처장의 사망이 있는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영광에서 무뇌아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무뇌아를 사산한 사건으로 지방 언론뿐 아니라 서울의 일간지도 크게 보도했는데 대부분의 언론은 무뇌아 출생이 원전과의 가능성을 시사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박신우 부처장의 백혈병 사망은 일체 보도되지 않았다. 방사선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던 주민의 무뇌아 사건과 원전에서 방사선 관리 업무에 장기간 근무했던 직원의 백혈병 사망에 대한 언론의 대응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NIMBY 현상일까? 아니면 농어촌 주민과 대도시 시민의 의식 수준 차이일까?

박신우 부처장이 타계한 지 28년이 흘러갔다. 그의 영혼이 살아있어 오늘의 국내 원전 개발 현상을 바라본다면 한때나마 그가 원전을 위해 불태운 젊은 날의 꿈을 깊이 간직할 듯하다. ☹️